



01

개인 건물주가 ExitWise를 써야 하는 이유

평생 일군 빌딩,
값은 왜 **상대가** 정할까

수십 년을 들여 모은 단 하나의 자산을 매각하는 순간, 가격의 주도권은 늘 매수자와 그쪽 자문사에게 넘어갑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감(感)’으로 부른 호가는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먼저 꺾입니다.

ACT 01 현실 THE REALITY	ACT 02 위기 THE RISK	ACT 03 전환 THE SHIFT	ACT 04 결과 THE RESULT
인생에서 빌딩을 파는 일은 한 두 번뿐. 시세도, 적정가도, 세금도 결국 주변 말과 어림짐작에 의존하게 됩니다.	근거 자료가 없으니 매수자가 부르는 값이 곧 기준이 됩니다. 한 번의 험값 매각이 평생 모은 자산의 수익 원을 깎아냅니다.	ExitWise는 주소만 넣으면 건축물대장·실거래가·등기·시세를 자동 연동해 기관급 IM을 만듭니다. NOI·Cap Rate·예상세후 수익까지 한 장에 정리됩니다.	‘얼마쯤’이 아니라 ‘왜 이 값인지’를 숫자로 말하게 됩니다. 매수자가 깎을 여지가 줄고, 협상의 주도권이 건물주에게 돌아옵니다.

건물주의 무기가 되는 4가지 CORE CAPABILITIES

 01 주소 한 줄로 기관급 IM 건물 주소만 입력하면 공부·시세·수익 분석이 담긴 매각 제안서가 30분 만에 완성됩니다.	 02 공공데이터 자동 연동 건축물대장·실거래가·등기부정보를 자동으로 끌어와 ‘말’이 아닌 ‘근거’로 가격을 뒷받침합니다.	 03 세후 수익까지 한눈에 매각가에 따라 달라지는 양도세와 실수령액을 미리 계산해, 팔기 전에 ‘남는 돈’을 확인합니다.	 04 검증된 전문가 연결 감정·세무·법무 전문가를 필요할 때 연결해, 혼자 떠안던 매각 절차를 함께 풀어갑니다.
---	---	---	--

적정가 산정

감 → 데이터

어림짐작 호가를 객관적 근거로 전환

IM 완성

수일 → 30분

주소 입력만으로 기관급 자료 완성

세금 파악

매각 후 → 매각 전

팔기 전에 세후 실수령액 확인

“빌딩의 가격은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증명하는 사람이 정합니다.

ExitWise는 건물주를 ‘협상의 주체’로 되돌려 놓습니다.

— 평생 모은 자산, 마지막 한 번의 매각이 결과를 가릅니다